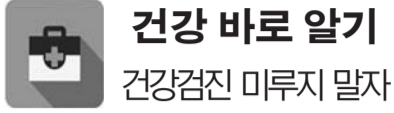


# 기저질환 유무, 코로나19 치유 결정적 요소... 반드시 검진 받아야



**건강 바로 알기**  
건강검진 미루지 말자

## 조주연 광주기독병원 과장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후유증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 ‘살천지’, ‘비만회’ 등 코로나 유행이 반영하는 것처럼 먹은 양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 및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부지런히 활동하고 움직여야 한다.

특히 기저질환 유무가 코로나19 치유 과정에 있어 결정적 요소이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항목 선택=건강 검진으로 병원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검사를 다 실시 하면 좋겠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 효과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진 전에 의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검진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흡연자의 경우 흉부 X-선뿐만 아니라 저선량 폐 CT를 추가해서 폐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하거나, 음주가 심한 경우에 혈액 간기능 검사에 복부 초음파를 추가하는 것도 좋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당뇨·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 60대 이상 혈관성 치매 조기진단을 건강상태·가족력 등 꼼꼼히 체크 연령별 맞춤 건강 검진 바람직

나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다면 검진과 함께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것도 추천된다.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 위험 요인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전 설문지와 면담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질병력, 가족력 등을 가능한 꼼꼼하게 적어 의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검진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령은 검진항목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화, 잘못된 생활습관에 따른 질병 발병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젊고 건강한 20~30대에는 질병에 대한 대비를, 40~50대는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60대 이상은 심뇌혈관 검사에 초점을 둔 연령별 맞춤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20~30대 검진=자신의 가족력, 생활 습관에 따른 현재 질병 유무와 질병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비만과 흡연, 음주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심뇌혈관의 위험성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검진을 통해 혈당과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해

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A형, B형)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가 없다면,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30대 때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5년 간격으로 시행 받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의 분비물을 채취하여 자궁경부 세포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검사로 대표적인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이다. 하지만 이 세포진 검사는 실제로 병이 있는데도 놓치는 확률(위음성)이 30%에 달해, 이를 보완하는 검사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함께 시행해 자궁경부에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50대 검진=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한데 혈당과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점검을 기본으로 여기에 암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은 국내 성인남성의 암 발생률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위 내시경은 1~2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은 5년 간격으로, 전립선암 표지자 검사는 50세 이상에서 매년 권고된다. 대장내시경도 암으로 발전 가능한 용종이 발견됐다면 그



광주기독병원 종합검진센터 조주연 과장이 중년 여성을 상대로 필요한 건강 검진 항목을 상담하고 있다.

(기독병원 제공)

위험성에 따라 1~3년 마다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이밖에 흡연자는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 매년 저선량 폐CT가 권고되고, 감염이 있거나 음주자는 간암 조기진단을 위해 복부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40대부터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에 검사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 혈액 검사와 함께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고, 유방검사는 유방 촬영(X-선)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치밀유방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유방 촬영(X-선)과 유방 초음파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좋다.

◇60대 이상 검진=질병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암검진에 더불어 치매검사가 추천된다. 기억력 감퇴로 인한 치매가 걱정된다면 치매선별검사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신경인지검사와 함께 뇌영상검사(CT 또는 MRI-형태검사, MRA-혈류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특히 뇌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요인이 있다면 뇌혈관 질환의 이상 여부를 뇌영상검사를 통해 파악할

으로써 혈관성 치매 등의 조기진단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 시기이지만 이 때문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진료와 건강 검진을 미룬다면 각종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병원이야말로 방역 및 감염관리가 매우 철저한 장소이므로 적당한 시일 내에 미루어 두었던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채용비리 감사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서 확인

감사실, 시험 공정성·인사 투명성 등 16개 개선안 제시

전남대병원, 국정감사 지적 따른 자체 감사 결과 공개

채용비리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대병원 감사실이 채용과 관련해 시험문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출제하고, 전형과정에 친인척 등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는 등의 16가지 개선방안을 병원 측에 제시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른 채용비리 자체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특별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용관련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자체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 ▲인사의 투명성 강화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등 16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는 문제출제 외부 위탁, 서류면접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친인척 이해관계자의 시험위원 배제 등을 제안했다.

인사투명성 강화 부문에서는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인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50% 이상 참여와 사무국장 승진후보자 대상 내부공모제 도입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는 담당자 1명이 전담하던 채용업무를 별도 팀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후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감사위원과 자체감사인력으로 구

성된 특별감사반에 의해 진행됐다. 전남대병원 이성길 상임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남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것처럼 이번 자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시스템을 혁신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용 병원장은 “자체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감사실의 의견을 혁신위원회의 최종안에 반영해 병원 운영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경찰조사는 최근 마무리돼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채용비리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악성 흑색종’ 탐지 초고감도 PET 영상센서 개발

화순전남대병원 민정준 교수 등 연구팀 피부암 조기진단·치료 새 지평 열어



민정준 교수

김동연 박사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민정준 교수·김동연 박사 연구팀이 최근 ‘악성 흑색종’의 전이병소를 정밀하게 탐지하는 초고감도 PET 분자영상 프로브(센서) 개발에 성공, 조기진단과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

연구팀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에서 분비되는 멜라닌 분자에 강하게 흡착하는 벤자미드(benzamide) 유도체를 이용해 새로운 분자영상 정밀진단기술을 개발했다.

악성 흑색종은 초기에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해 제거하면 되지만, 일단 전이되면 1년내 사망률이 75%에 이를 만큼 치사율이 높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조기진단이다.

이에 연구팀은 화학적 방법을 통해 원발병소는 물론 1mm 미만의 작은 암 전이병소까지 조기진단할 수 있는 영상 프로브를 제작했다. 프로브(probe)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란 생체내 특정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 연구는 세계적 과학저널인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 5월 21일자에 게재됐으며, 연구진은 이 기술에 대한 국내특허 등록에 이어 해외특허를 출원했다. 임상시험을 위한 기술이전도 병행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융합 융합 기술 파이오니어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